
한주필 칼럼

惜吝成屎(석인성시), 아끼지 말고 써라

우리가 살아가면 흔히 겪는 일들 중에 하나, 혹은 성격 풀이에 자주 사용되는 질문의 하나로, 식탁에 맛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부터 먼저 먹겠는가? 물론 경쟁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형제들끼리 모여서 먹는 식탁이라면 일단 맛있는 것부터 손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경우는 어떠세요? 이런 선택은 군복무 중에도 흔히 거론되는 화두입니다. 오늘이 부대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는 외박 순서인데, 오늘 나가도 되지만, 내일 부대장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그때는 하루 외박이 아니라 이틀간 특박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택할 건가요? 군대에서는 가차 없이 당장 돌아오는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틀 후에 간다는 특박이 사정상 못나는 경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소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 때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놓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입시에 매달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승진을 위해 오늘의 여가를 반납하고 일에 매진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나이가 들면 노후를 위해 또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며 지냅니다. 그러다 노

후가 되면 맘 놓고 즐길까요? 며칠 전 친구가 카톡으로 위제목, 惜吝成屎(석인성시)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낄 석(惜), 아낄 린(吝), 이를 성(成), 똥 시(屎), 사자성에 이런 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해석하면 '아끼고 아끼다 똥된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보낸 글에는 어느 부부의 사연이 담겨있습니다. 노후에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시골에 농장을 마련하고 일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며 살겠다고, 시골에 집을 사고 작은 농장을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도록 노력한 부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련해가는 데, 어느 날 남편이 암으로 먼저 떠납니다. 홀로 남은 부인은 그 멋진 농장에서 무슨 노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글을 읽으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살고 있나? 대부분 환갑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노후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지내겠다는 생각에 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삽니다. 사실 이미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며 더 먼 장래에 빈곤한 삶을 피하고자 참고 또 참습니다. 하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보낸 이야기의 남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나중에, 노후에 잘 살겠다고 열심히 아끼고 욕구를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가 내일은 먹구름이 몰려와 종일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열심히 일을 찾아다니는 친구, "적당히 하고 여가를 좀 갖지 그래" 하며 너무 일에만 빠져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넋지시 던지면, 그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래 이제는 그래야지, 올해까지만 열심히 하고, 이제 주식에 투자한 돈으로 노후 준비는 마친 셈치고, 내년부터는 일에서 손을 떼고 여행이나 하면서 살겠다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날이 올까요? 그날은 자신이 애써 만들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엉뚱한 일로 힘들여 모아둔 자금을 한 번에 다 써야 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친구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운명이 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유일한 방안은 지금, 오늘부터 당

장, 여가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뿐입니다. Do it now! 나중에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함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한창 꿈을 만들어 갈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업과는 별도로 개인 의 삶에 있어서는 현재를 참으면 미래가 밝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다리던 미래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 정성을 들일 테니까요. 우리처럼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과 자주 만나며 정을 나눌 시간이 가질 것이라며 다짐하며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날이 올까요? 누군가 그리운 이가 있다면 지금 당장 카톡이라도 보내는게 아쉬움을 푸는 방법입니다. Do it now!



INDUSTRIAL
(주)BW산업개발

베트남 최고의 임대공장 및 임대창고

10대 핵심산업 도시 ★ 35개 프로젝트 ★ 2.465백만평의 토지 보유

BWID고객 수 211개 기업 24개국

✓ 위치: 하노이, 호치민시 인근 - 약 30분부터

✓ 즉시 입주가능

✓ 다양한 면적 (최소 302평)

✓ 저렴한 임대료

✓ 공장설립 무료상담 및 인허가 무료지원

➢ BWID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십시오

☎ 핫라인: (+84) 28 710 29 000

✉ 이메일: leasing@bwidjsc.com

☎ Kakao Talk ID: VaniDang

WARBURG PINCUS BECOMEX



솔가 베트남 공식 판매 개시

www.Solife.vn

기업고객

40% 할인

- 즉시 40% 할인
- 10명 이상 회사 단체 가입 시
- 문의사항은 본사로 연락



개인고객

20% 할인

- 즉시 20% 할인
- 추천인 20% 현금 지급
- 회원 제도에 따른 추가 할인



WHY SOLGAR?



코셔·할랄 인증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올바르고 청결하게 제조



75년 전통

194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



갈색병

빛, 열, 수분으로부터
영양소를 보호하는 갈색병



소량생산

철저한 품질관리위한
소량생산의 원칙



www.Solife.vn



wnsghd815



4th Floor Resco Building, 94-96 Nguyen Du Street, Ben Nghe W, Dist.1, HCMC



Solife



Solife



Since 1947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베트남, 중국에 단체관광 재개 요청



앞서 이달초 중국은 해외 단체여행이 가능한 20 개국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몰디브,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제외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도 입국제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제외한 바 있다. 사실상 가장 큰 관광시장만 제외한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80 만명으로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가 베트남과 단체관광을 재개했음에도 양국은 아직 상호 간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외국인관광객 약 37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약 1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인이 약 40만명이었다. 중국인은 아예 순위권내에 없었다. 최근 HSBC는 올해 베트남이 중국인 관광객 300만~450만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외국인관광객 목표 800만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7)

한국인 관광객에, 정상 요금의 10배 넘는 금액을 바가지 씌운 다낭 택시기사 적발



다낭에서 현지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10배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Vnexpress지가 15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허모(35)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항공편으로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하이찌우에 위치한 호텔에 가기 위해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목 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한 택시기사의

말에 원래 예약했던 택시를 취소한 뒤, 해당 차량에 올라탔다고 한다. 다낭 공항에서 허씨가 예약한 호텔까지 거리는 약 4.5km였다. 이곳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km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허씨에게 210만동(11만4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상 요금 보다 10배 넘는 액수다. 이에 허씨는 이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광객에게 10배 넘는 요금을 청구했다 사실을 인정했다. 다낭시는 이후 한국에 귀국한 허씨에게 더 낸 요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택시기사가 4km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Vnexpress 2023.02.15)

베트남, 중국의 간간한 농산물 수입코드 부여에 불만



중국의 엄격한 농산물 수입절차로 인해 베트남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고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당 폭 응웬(Dang Phuc Nguyen) 베트남과일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중 농산물 수출 촉진회' 에서 "중국이 베트남 농산물에 부여한 수입코드(Production Unit Code, PUC)는 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일례로 두리안종 PUC 가 부여된 것은 전체 생산물량의 5%에 불과하며, 용과는 PUC부여에 6~7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중국이 베트남산 농산물에 간간한 기준을 들 이대며 수입쿼터를 조절하고있어 국내업체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PUC는 생

(인사이드비나 2023.02.16)

베트남 불법입국 알선 한국인 총책 2명 징역10년



중부 다낭시인민법원이 코로나 19 기간 한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총책 2명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5일 열린 1심재판에서 코로나 19 기간 특별입국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한국인들의 불법입국 알선을 주도했거나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총책인 중부한인회 부회장 이모씨(55)와 서모씨(50)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다. 법원 명의를 빌려준 다른 한국인 3명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6개의 유명법인을 설립, 전문가 특별입국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주도 또는 조력했으며, 이들중 3명은 유명법인 명의로 가짜 서류와 비자를 발급받는 등 공문서를 위

(인사이드비나 2023.02.16)

박항서 후임, 트루시에 전 일본 감독 내정



일본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카타르 대표팀 감독 등을 지냈다. 2019년에는 베트남의 18세 이하(U-18) 대표팀 감독으로 일하며 베트남 축구와도 인연을 맺었다. 문체 없이 성인 대표팀 수장에 부임 한다면 그는 박 감독이 5년간 랑 쌓아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중책을 맡게 된다.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을 마지막으로 5년간의 동행을 마쳤다. 그는 베트남 사상 첫 아시아안게임 4강 진출(2018년),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구 우승(2019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등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 영웅' 반열에 올랐다. 2016년 FIFA 랭킹 134위였던 베트남은 박 감독 체제에서 100위 안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순위는 96위다.

(연합뉴스 2023.02.16)

고객님을 위한 신한베트남은행의 특별한 혜택

신한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신용카드

신한 PWM & VISA Signature 신용카드

교민소식

KOREAN NEWS

2023.02

교민사회의 정보가 되는 소식들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해 드립니다.

삼성베트남, 연례 헌혈 기부활동 시작



삼성베트남이 연례행사인 헌혈 기부활동을 시작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삼성베트남에 따르면 지난 14일 북부 박닌성(Bac Ninh) 삼성전자베트남(SEV) 사업장에서 헌혈 기부활동 행사를 치렀다. 행사에 참여한 최주호 삼성베트남의 사화공헌사업은 헌혈기부 외에도 박닌성, 타이완생성(Tai Nguyen), 박장성(Bac Giang), 랑선성(Lang Son) 등지에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삼성희망학교 건립 사업,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삼성혁신캠퍼스(SC), 장애인 복지여 지급사업 등 전국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6)

전북도-베트남 닥락성, 우호결연 5주년 맞아 교류 강화기로



국제교류 강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외교 사절단이 15일 베트남 닥락성을 찾아 우호를 다졌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 등 사절단은 이날 팜 응옥 응이 닥락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

'베트남에 홍삼을'...신풍제약, 최초로 제품군 현지 생산·판매



한국 제약사가 베트남에서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현지 생산 및 판매에 나섰다. 신풍제약은 지난 2000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비엔호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2003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해 정제와 캡슐제, 연고제, 현탁액제 등을 생산해왔다. 또 2007년에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GMP 인증까지 받았다. 특히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인 '켈트리손' 연고는 현지에서 1억4천만 튜브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명실상부한 베트남 국민 연고로 자리 잡았다. 이어 2019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까지 획득해 2020년부터 종합 비타민류를 비롯해 관절 영양제, 뇌 영양제 등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홍삼이 베트남 법인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판매하게 된 것은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라면서 "꾸준히 제품 개발에 주력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

(연합뉴스 2023.02.17)

을 하고 양 지역 간 관계 격상을 하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와 베트남 닥락성 이들을 통해 원활한 체결근로자 수급과 양 지역 간 문화연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사절단은 16일에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수마트라주 한인상공회의소 및 호남향우회 등과 우호 협력 증진으로 교류의 다양성과 깊이 기업 판로 개척 및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2023.02.15)

한국 딸기 대잔치 '니들이 딸기 맛을 알아?'

알타킹

설향

백설

금실

딸기 구입 문의 연락처 : 091 854 0463 | 카톡아이디 : KG 531



신자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